

韓愈 ‘傳’의 장르 성격에 관한 검토

李 鍾 漢*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韓愈 ‘傳’의 장르 규정 |
| II. ‘傳’의 특징과 분류 | V. 맺음말 |
| III. 韓愈 ‘傳’의 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 | |

I. 들어가는 말

韓愈(768~824)는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대전환의 실마리를 연 中唐 시대에 활약한 대문호로, 古文運動을 주도하여 문학의 기풍 내지 흐름을 바꾸어놓았을 뿐 아니라, 전대에 이룩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구어 내었다. 그가 이룩한 산문 영역에서의 새로운 성취는 문장 체재, 산문 풍격, 산문 언어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중에서 그는 문장 체재의 새로운 창조와 관련하여 각체 문장의 진부한 상투를 타파하였다는 평가¹⁾를 받듯이, 실용적인 문장 체재를 비롯하여 많은 산문의 소장르들에 문학적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체재를 창조하기도 했다.

중당은 傳記文學이 흥성한 시기로, 그것은 바로 고문운동이 이룩한 주요 실적의 하나이기도 하다.²⁾ 특히 한유는 唐代 고문운동의 주도자로서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1) 郭預衡, 《中國散文史》中(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10.), 185쪽: “他寫各體文章, 都能打破陳規, 不拘格套.”

六朝 시대와는 달리 花鳥風月이나 山水를 산문의 제재로 택하지 않고 인간의 傳記나 墓誌銘 등을 통해 한 인물의 인생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으로 상징된 인생 전반 내지는 그 배후에까지 확장된 사회를 묘사해내는 것이 문학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산문정신’을 확립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³⁾

게다가 ‘傳’은 한유가 남긴 다양한 문장 체재 중에서 문학적 색채가 특히 농후한 것의 하나이다. ‘전’을 위시한 傳記文學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그는 先秦·兩漢에 걸쳐 성행한 史傳과 西漢 말엽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雜傳의 두 흐름을 한 데 아우른 기초 위에서, 그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었다.⁴⁾ 그는 전기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서사적 작품을 매우 많이 남겼지만⁵⁾, 본고에서는 전기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체재인 ‘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4편의 글, 곧 <圻者王承福傳>과 <毛穎傳> 및 <太學生何蕃傳>과 <下邳侯革華傳>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이 네 작품 중에서 <오자왕승복전>과 <모영전>의 두 편을 중심으로 장르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⁶⁾ 한유의 ‘전’에 대한 장르 성격 규명에 앞서, ‘전’의 특징과 분류에 대한 일반론도 정리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 2) 李一飛, <中唐傳記文學鳥瞰>, 《文學遺產》, 1992年 1期, 59쪽.
- 3) 前野直彬 / 김양수·최순미 옮김, 《중국문학서설》(개정판; 서울: 토마토, 1996. 3.), 68쪽.
- 4) 陳蘭村·張新科, 《中國古典傳記論稿》(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1. 10.), 248-9쪽.
- 5) 周敏은 <試論韓愈古文與小說的關係>란 글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나 묘사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서사적 작품이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다: 《韓愈研究》, 3輯(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2. 3.), 188/198쪽.
- 6) 한유가 남긴 4편의 ‘전’ 가운데서 <태학생하변전>은 태학생 신분으로 20여년간 있으면서도 진사시에 합격하지 못한 何蕃을 동정하고, 그의 효성과 어질고 용감한 일면을 증점적으로 부각시켜 서술한 家傳인데, ‘전’의 전기문학으로서의 장르 성격을 논함에 있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하비후혁화전>은 僞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설령 위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품 취지와 스타일이 <모영전>과 꼭 같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모영전>에 대한 논의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기존 연구 현황을 간략히 훑어보자. 먼저 국내의 경우는 漢文學界에서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에 ‘전’의 장르 성격을 다룬 논문과 저서가 나온 바 있다.⁷⁾ 중문학계에서는 이들 선구적 연구를 뒤이어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나온 唐傳奇의 소설적 특성에 관한 石明의 연구, 唐代傳에 대한 南宗鎮의 전반적 연구, 傳記의 故事性を 다룬 趙殷尙의 연구 등이 본고의 논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⁸⁾ 석명의 연구는 傳記와 傳奇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唐傳奇의 소설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였고, 남종진은 중국의 연구 성과를 소화한 기초 위에서 국내 漢文學 및 국문학의 성취까지 참고하여 당나라 때 短篇 傳의 개괄적 특징 및 발전 배경, 형식 및 내용상의 특징 등을 조리 있게 논의한 것이어서 본고에 많은 참고거리가 되었다. 조은상의 연구도 최근에 들어와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한유 산문의 소설적 경향을 탐색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국외로 눈을 돌려 보면, 중국에서는 한유와 柳宗元(773~819)을 위시한 唐代 고문 대가들의 산문 속에 나타난 소설적 요소를 탐색하는 작업이 근래에 들어와 새로운 연구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점을 포함하여 중국에서는 傳記文學에 대한 저서와 논문 및 산문 辭典과 文體論 관련 서적들이 적지 않게 나와, ‘전’에 대해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⁹⁾ 서양에서는 한유의 산문 작품 중에서 매우 특징적인 몇몇 작품을 대상으

-
- 7) 安秉尙, <韓中假傳文學研究>, 《中國學報》, 15輯(1974. 12.), 23-51쪽.
 安秉尙, <傳의 文學的 變容>, 《韓國學論叢》, 2輯(1979.), 131-154쪽.
 崔信浩, <傳記·傳奇·小說>, 《聖心語文論集》, 5輯(1981. 12.), 1-14쪽.
 金昌龍, 《韓中假傳文學의 研究》(서울: 開文社), 1985. 8.
- 8) 石明, <唐傳奇의 小說的 特性 研究>, 《中國文學》, 14輯, 1986. 12.
 南宗鎮, <唐代 文人의 短篇 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趙殷尙, <韓·柳의 글쓰기에 대한 試論—傳記의 故事性を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17輯, 2005. 6.
- 9) 중국의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 미리 적시하지 않고, 뒤에서 논의할 때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로 검토한 글 가운데에 그 소설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가 부수적으로 진행되었다.¹⁰⁾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유 '진'의 장르에 대한 기왕의 산발적 언급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 장르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한유라는 작가가 자신의 문학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산문 문학에 새로운 창조를 가미하고 그 예술성을 제고시켰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유 진의 장르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는 趙東一의 관련 장르론을 참고하여¹¹⁾, 최근까지도 장르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충분한 검토 없이 한유의 傳體 작품을 소설로 규정하는 중국 내 일부 논자들의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II. '傳'의 특징과 분류

주지하듯이 梁代의 《文心雕龍》과 《文選》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전통적인 문장 체재 분류는 후대로 올수록 번다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 清末과 近代에 들어와 비슷한 부류의 체재들을 한 데 묶어서 범주화하는 작업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의 한 극치라고 할 수 있는 明代 徐師曾(1516~1580)의 《文體明辨》에서는 중국의 문장 체재를 무려 127종까지 나누어놓고 있다. 이처럼 문장 체재를 겉으로 드러난 이름에 따라 세분하는 것은, 적절한 분류를 통해 중국의 문장 체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이렇게 세분한 뒤 각 문장 체재에

10) Y. W. Ma, *Prose Writings of Han Yü and Ch'uan-ch'i Literature*, *JOS*, 7 : 2(1969)

Willuam H. Nienhauser, Jr., *An Allegorical Reading of Han Yü's Mao-Ying Chuan*, *OE*, 23 : 2(1976)

James R. Hightower, *Han Yü as Humorist*, *HJAS*, 44 : 1(1984).

11) 趙東一, <假傳體의 장르 規定>, 《藏菴池憲英先生回甲紀念論叢》, 1971.

가한 어원적 의미 풀이와 그 기원 및 후대의 발전에 대해 덧붙인 설명은 특정 체재의 전통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많은 문장 체재의 하나인 '전'에 대해서 서사증이 가한 어원적 풀이와 후대의 발전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하위분류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¹²⁾ '傳'에 대해서 《文體明辨序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생각건대 字書에서 이르기를 “傳은 ‘전한다’는 뜻으로, 사적을 기재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나라의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함에 처음으로 ‘열전’을 창제하여 한 개인의 시종을 기록한 뒤로, 후세 역사가들은 끝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 그 뒤로 산림이나 향간에 흠덕을 숨긴 채 드러나지 않았거나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모두 전을 써서 그 사적을 전하고 작자의 의도를 기탁하였으며, 글쓰기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간간이 골계의 수법을 그 속에 섞어 넣기도 하였는데 모두가 전의 체재들이다. 따라서 지금 그것을 구분하여 늘어놓으니, 그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史傳(正體와 變體의 두 가지가 있음)이고, 둘째가 家傳이며, 셋째가 托傳이고, 넷째가 假傳인데, 글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고할 것이 있도록 한다.¹³⁾

12) 《문체명변》의 편찬에 많은 참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吳訥(1372~1457)의 《文章辨體序說》에서도 '傳'에 대해 비슷한 설명을 가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傳'의 어원적 의미에서 후대의 변화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더 조리 있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13) 《文體明辨序說》(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2. 8), 153쪽: “按字書云: ‘傳者, 傳也, 紀載事迹以傳於後世也.’ 自漢司馬遷作《史記》, 創爲‘列傳’以紀一人之始終, 而後世史家卒莫能易. 嗣是山林里巷, 或有隱德而弗彰, 或有細人而可法, 則皆爲之作傳以傳其事, 寓其意; 而馳騁文墨者, 間以滑稽之術雜焉, 皆傳也. 故今辯而列之, 其品有四: 一曰史傳(有正變二體), 二曰家傳, 三曰托傳, 四曰假傳, 使作者有考焉.” 石明의 앞의 논문 25쪽과 南宗鎭의 앞의 논문 12쪽에 이 글의 대부분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번역을 참고하되 필자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좀 달리 옮기기도 했다. 일찍이 安秉高이 <韓中假傳文學研究> 26~30쪽에서 傳에 대한 서사증의 분류와 설명에 근거하여 假傳의 발생 과정을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우선 聲訓의 방법으로 인물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는 ‘傳’의 어원적 의미를 풀이하고, 그것이 司馬遷(145?~? B.C.)의 《史記》 ‘列傳’에서 기원하여 후세 역사가들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그리고 뒤에 산림이나 향간에 은거하며 덕을 숨기고 살아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이 미천하더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면 ‘전’의 기록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傳’이 역사서 속의 인물 전기를 넘어, 문인 학자들이 쓴 ‘散篇傳記’로 확대되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전’의 분류 및 발전배경 등 그 장르적 특징을 논하면서 南宗鎭은 《文體明辨序說》의 ‘전’에 대한 풀이에 근거하고, 근년에 나온 韓兆琦, 陳蘭村, 朱文華, 孫致中 등 주요 논자들의 傳記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唐代에 들어와 ‘전’은 史傳과 雜傳의 전통을 계승하여 散傳이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개별 작품의 문학성도 제고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¹⁵⁾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馳騁文墨者’ 곧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인물의 사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간간이 골계의 수법이 가미된 것도 ‘전’이라는 양식 내에 출현하였다는 대목이다. 이 점은 바로 뒤에 나오는 ‘전’의 종류에서도 나타나듯이 ‘史傳’ 곧 ‘역사 전기’에서 비롯된 ‘전’의 성격이 ‘家傳’과 ‘托傳’을 거쳐 ‘假傳’의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달리 말해서 ‘전’이라는 문장 체제가 역사에서 점점 문학의 영역으로 전이되어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해학적 수법까지 구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14) 물론 주지하듯이 《左傳》과 《國語》 및 《戰國策》 등의 역사서에 이미 전쟁과 같은 대사건을 서술하는 가운데 활약한 인물의 사적을 기록한 내용이 일부 篇章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열전’이라는 양식을 독립적으로 내세우고 역사의 파노라마를 움직인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사기》에서 비롯되었다. 朱自淸은 이런 맥락에서 한대에 사마천에 들어와 사건 중심 기술에서 인물 중심 서술로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언급하였다. 朱自淸의 견해는 <經典常談·文>, 《朱自淸古典文學論文集》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7.), 710쪽 참조.

15) 南宗鎭, 앞의 논문, 11-12쪽/35-36쪽 참조.

근래에 나온 文體學 관련 서적이거나 산문 사전류의 책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朱子南이 주편한 문체학 사전에서는 '전'의 종류를 나누면서 역사 전기와 宋代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 전기를 묶어 '전기'로 나누고, 그 밖에 두 가지 다른 종류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¹⁶⁾ 즉 감정을 토로하고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물의 傳記 형식을 빌려 기탁한 문장을 한 종류로 설정하고, 그 작품 예로 陶淵明(365?~427)의 <五柳先生傳>, 韓愈의 <圻者王承福傳>, 柳宗元の <種樹郭橐駝傳>을 들고 있다. 그리고 사물에 사람의 성격을 부여하여 전기 형식으로 쓴 문장을 또 다른 종류로 설정하고, 韓愈의 <毛穎傳>과 유중원의 <蝨蝦傳>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 두 종류는 각기 서사증이 말한 '托傳'과 '假傳'에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林非가 주편한 산문 대사전에서도 '傳'에 대해 바로 앞에서 말한 문체학 사전과 거의 꼭 같은 취지로 분류하고 동일한 작품을 예로 들면서 유사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다만 '탁전'에 해당하는 부류에 대해 그 작중 인물이 '반드시 실존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고 보고 들은 것에 의지할 뿐'(不一定實有其人, 只是憑藉見聞)¹⁷⁾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어서 '傳記'라는 항목에서 전기를 두 부류로 대별하고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위주로 한 것 외의 다른 한 부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 부류는 문학의 범위에 속하는데, 주로 형상화의 수법으로 각종 인물의 생활 경력과 정신 면모 및 그 역사적 배경을 묘사한다.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더라도 모종의 상상적인 문학적 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¹⁸⁾

16) 朱子南 主編, 《中國文體學辭典》(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8. 11.), 121쪽. 이 책에서는 이밖에 經書에 주석을 가한 글도 '傳'의 또 한 종류로 들고 있지만, 그것이 후대 '전'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본고의 취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7) 林非 主編, 《中國散文大辭典》(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6.), 75쪽. 원문에서 '憑藉'의 '藉'가 '籍'으로 잘못 적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위의 두 서적에서의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 전기에서 출발하여 인물의 평생 사적 가운데서 정채로운 부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문학적 색채가 풍부한 전기 중에는 실존하지 않은 가공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간혹 상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예술적 가치가 한층 더 풍부한 작품도 출현하여 한 부류를 이루게 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褚斌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전통문학의 장르를 논한 대표적 저술에서 傳記體 문장을 역사서의 인물 전기인 史傳, 역사서 이외에 문인 학자들이 쓴 散篇傳記, 전기체로 허구화한 인물고사의 세 종류로 나누고, 마지막 것은 실은 ‘傳記小說’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전’은 전기문학의 중심에 있는 문학성이 농후한 문장 체제이다. 전기문학으로서의 ‘전’이 지닌 장르 성격과 관련하여 일군의 논자들은 그 가운데 허구에 입각한 소설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III. 韓愈 ‘傳’의 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

唐代 ‘전’의 발전에 있어서 한유는 그 중심적 위치에 서 있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우선 한유는 4편의 ‘전’을 써서 당대에 단편 ‘전’을 남긴 작가들 가운데서 多作을 한 축에 속할 뿐 아니라²⁰⁾, 서사증의 ‘전’에 대한 하위분류 용어를 빌면 4편 중 3편이 ‘托傳’과 ‘假傳’에 속하여 문학성 또한 매우 높다.²¹⁾

18) 같은 책, 75쪽: “一類屬於文學範疇, 多用形象化方法描寫各種人物的生活經歷·精神面貌及其歷史背景; 以史實作依據, 但不排斥某些想像性的文學描寫。”

19) 褚斌傑, 《中國古代文體概論》(增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10.), 420쪽.

20) 唐代 短篇 傳의 작가별 작품 수에 대해서는 남종진, 앞의 논문, 25-27쪽 참조.

21) 서사증은 《文體明辨》에서 <圻者王承福傳>은 托傳, <毛穎傳>은 假傳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작품 성격상 <下邳侯革華傳>은 당연히 假傳에 속한다.

한유 '전'의 문학성에 대한 검증은 장르 성격을 둘러싼 논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그 장르 성격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한유가 남긴 '전'의 주요 작품인 <圻者王承福傳>과 <毛穎傳>이 과연 산문이나 소설이나를 둘러싸고 진행되어왔다.²²⁾ 이제 이 장에서는 한유 '전'의 소설적 가능성 내지 소설임을 주장한 주요 논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찍이 전통 시대에 淸初의 顧炎武(1613~1682)가 <太學生何蕃傳>, <圻者王承福傳>, <毛穎傳>의 세 작품을 모두 '稗官之屬'²³⁾이라고 하여 광의의 소설류에 비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이 문제는 근대적 연구의 단계에 들어와 유명한 역사학자인 동시에 문학 연구자인 陳寅恪(1890~1969)을 필두로 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진인각은 한유의 문집 속에 소설과 흡사한 작품이 많다고 하면서 <모영전>과 <石鼎聯句詩并序>를 그 대표적 예로 들기도 하고, <모영전>을 '古文으로 소설을 쓴 일종의 실험'(以古文爲小說之一種嘗試)²⁴⁾이라고 했다.²⁵⁾ 다만 진인각이 뒤에 다른 저술에서 <모영전>의 소설 실험은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²⁶⁾

22) '전'체 작품 이외에 한유 산문의 소설적 취향을 언급할 때 <石鼎聯句詩序>,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 <柳州羅池廟碑>, <應科目時與人書> 등이 자주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3) 顧炎武, 《日知錄》(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56. 4.), 4冊, 18쪽, <古人不爲人立傳>: "何蕃僅採其一事而謂之傳. 王承福之輩皆微者而謂之傳, <毛穎>·<李赤>·<蝸蟻>則戲耳, 而謂之傳, 蓋比於稗官之屬耳."

24) 陳寅恪 撰 / 程會昌 譯, <韓愈與唐代小說>, 《韓愈研究論叢》(香港: 大東圖書公司, 1978.), 182쪽.

25) 한유가 당대 소설의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거론한 진인각의 견해를 한유 시문에 나타난 오락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라는 시각에서 논의한 필자의 <專門 文人으로서의 韓愈>(《東亞人文學》, 12輯, 2007. 12.), 18-20쪽 참조.

26) 陳寅恪, 《元白詩箋證稿》(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3.), 115쪽. 이 책은 1950년에 처음 간행되었고, 뒤에 두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959년에 지금의 내용으로 판형이 확정되었다. <모영전>이 고문으로 쓴 소설로서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견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Y. W. Ma(馬幼垣)는 진인각의 선언적 견해를 이어받아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Y. W. Ma는 한유가 겉으로는 적극적인 排佛論의 입장에 서서 儒家의 도를 전하는 옹호자로서 자임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승려와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융통성을 보였는데 바로 그런 점이 작가적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인식 위에서, 한유의 산문 작품 속에 보이는 소설적 경향을 탐색하여 한유가 여러 소장르에 걸쳐 소설 같은 산문 작품을 쓰고, 傳奇小說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진단했다.²⁷⁾ 다만 Y. W. Ma는 ‘소설 같은(fiction-like)’ 작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소설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韓兆琦는 <모영전>과 <오자왕승복전>을 ‘傳記體 寓言小說’로 간주하였다.²⁸⁾ 다만 그는 본래 소설이 傳記文學 속에 들진 않지만 傳記小說과 傳記體小說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본 것으로²⁹⁾, 비록 이름은 ‘전기체 우언소설’이라고 하였지만 바로 소설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뒤에 한유와 유종원 전기문학의 예술적 특징을 언급함에 이르러서는 韓·柳의 傳記文이 역사 사실의 기록을 위주로 하는 史傳文도 순수한 應用文도 아니라 사람의 생애를 전하는 것을 위주로 한 ‘문학성 산문’으로서, 이미 정식으로 문학의 범주에 진입했다³⁰⁾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中唐代 문인들의 손에 의해 더욱 번성한 것은 傳記體의 형식으로 애정과 협객을 주제로 하여 쓴 傳奇小說인데 반하여, 한유와 유종원의 전기체 소설은 우언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사상을 표현하였다고 한 것³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둘 사이에 분명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Y. W. Ma, 앞의 논문, 195-223쪽.

28) 韓兆琦, 《中國傳記文學史》(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2. 8.), 187쪽.

29) 같은 책, 4-5쪽.

30) 같은 책, 211쪽.

31) 같은 책, 187쪽.

孫昌武는 <모영전>과 <오자왕승복전>은 비록 우언에서 나왔지만, 傳奇의 성분이 들어 있으며, <石鼎聯句詩序>는 바로 '傳奇小說'이라고 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모영전>을 傳奇와 傳記, 傳奇와 寓言의 중간 장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³²⁾ 말하자면 손창무는 한유의 '전' 두 작품은 傳奇의 성분이 든 우언이고, <모영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傳奇와 傳記, 傳奇와 寓言의 중간 장르라고는 했지만, 傳奇小說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董乃斌은 당나라 문인들의 傳記 중에서 《文苑英華》에 수록된 일군의 서사적 산문 작품은 소설적 요소를 띠고 있다고 하면서, <모영전>은 순전히 유희적 필치의 작품으로 '小說' 또는 '準小說'로 간주되어 왔다고 했다.³³⁾ 그런데 그는 바로 이어서 《太平廣記》에 수록된 陳鴻(813 전후)의 <長恨歌傳>과 沈亞之(781~832)의 <馮燕傳>은 傳奇小說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소설이라고 단정지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文學傳記와 傳奇小說의 구분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모호하고 상호 교차된다고 풀이하고, 한유가 소설가는 아니지만 그의 글쓰기 구상이 이미 소설의 敘事 思惟에 진입하였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논의는 蔣凡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³⁴⁾ 장범은 韓·柳의 산문 중에서 '전'체를 위시하여 여러 소장르의 작품을 예로 들어 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張籍(767?~830?)이 '駁雜無實之說'이라고 비판을 가한 것은 '소설의 필법으로 쓴 고

32) 孫昌武, 《唐代古文運動通論》(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4. 4.), 33쪽.

33) 董乃斌, <唐代詩歌散文的小說化傾向>, 《唐代文學研究》, 第4輯(桂林: 廣西師大出版社, 1993. 11.), 261쪽.

34) 蔣凡, <韓愈柳宗元的古文“小說”觀>, 《文章并峙壯乾坤—韓愈柳宗元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 1.), 57-69쪽. 이는 원래 《學術月刊》 1993년 12기에 수록된 논문으로, 蔣凡은 이 글에서 明清代의 일부 고문가들이 소설을 고문의 大敵으로 간주한 편견은 韓柳와 같은 고문 대가들이 '古文小說'을 제창함으로써 문학의 개혁을 촉진한 고심을 흘시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더 나아가 고문운동과 당전기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견해와 전혀 무관하다는 지극히 상반되는 입장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쌍방의 주장이 지니는 장단점을 절충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다.

문’(用小說筆法寫的古文) 또는 ‘고문으로 쓴 소설작품’(用古文寫的小說作品)이라고 진단하고, <모영전>은 고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문으로 쓴 유희적 소설’(用古文戲作小說)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모영전>과 <石鼎聯句詩序>는 진정으로 ‘고문소설’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周敏은 소설과 한유 고문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한유의 산문 작품 중에서 소설적 예술수법과 창작관념을 고문으로 끌어들이고 고문에 소설적인 맛을 부여한 것은 ‘소설고문’이라고 하고, 고문의 형식과 소설의 정신을 융합하여 양자간의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것은 장범의 용어를 끌어와 ‘고문소설’이라고 정의한 뒤 고문소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은 <모영전> 한 편이라고 했다.³⁵⁾

이상의 주장을 요약하면, 蔣凡과 周敏에 의해 ‘소설고문’이라는 진단이 나온 바와 같이, 한유의 ‘전’에 소설적 요소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실제 소설적 요소는 일찍이 《左傳》이나 《史記》 등에서도 자주 발견되지만, 중당 시기에 편폭이 매우 짧은 단편의 ‘전’에까지 들어와 그 밀도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은 진전된 면모라 할 것이다. 반면에 과연 소설이냐를 단정함에 있어서는 논자들의 주장이 엇갈림을 알 수 있다. 즉 진인각 이후 일군의 논자들은 한유의 ‘전’에서 소설적 기법을 활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장르를 소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韓兆琦가 <모영전>과 <오자왕승복전>을 조심스럽게 ‘傳記體 寓言小說’임을 시사하고, 孫昌武가 <모영전>을 傳奇와 傳記, 傳奇와 寓言의 중간 장르라고 한 견해를 기점으로, 董乃斌은 그 작품을 소설 또는 준소설로 간주한 뒤 한유가 소설가는 아닐지라도 글쓰기 구상은 이미 소설의 敘事 思惟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蔣凡과 周敏은 바로 <모영전>을 고문소설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李景華는 <모영전>을 역사 傳記 체제의 ‘傳奇小說’이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³⁶⁾

35) 周敏, 앞의 논문, 193-4쪽.

36) 李景華 외 지음 / 이종한·황일권 옮김, 《중국산문간사》(대구: 계명대학교출

그런데 한유의 '전'을 소설로 본 입장은 사실 기록의 전통이 강한 중국 산문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인식에 얽매어, 허구적 성분이 개입되면 소설로 보려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부 논자들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정의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中唐 이후 한유와 유종원 등 고문 대가의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허구에 의한 소설 성분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으로, 위에서 든 논자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³⁷⁾ 따라서 이들 작품을 소설로 간주한 것은 문학적 전환기를 살면서 '怪怪奇奇'한 것을 추구하기 좋아하고 '駁雜無實之說'도 즐긴 한유의 성격 내지 작가적 취향에 솔깃하여 작품 전체의 구조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선불리 내린 단정이라고 보인다.

IV. 韓愈 '傳'의 장르 규정

한유의 '전'이 소설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논자들도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사람은 魯迅(1881~1936)이다. 노신은 한유의 <오자왕승복전>이 비록 허구에 의해 지어진 글이기는 하지만 傳奇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고³⁸⁾, 沈既濟(780 전후)의 <枕中記>는 이야기가 황당무계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여 한유의 <모영전>에 비견하였다³⁹⁾고 한 것으로 보아 <모영전>을 傳奇와

관부, 2007. 6.), 214쪽. 이 책의 원서는 1987년 2월에 간행되었다.

37) 조은상의 앞의 논문도 이런 취지에서 '故事性'이라는 요소로 韓·柳의 傳記를 다룬 글이다.

38) 루쉰 저 /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서울: 소명출판, 2004. 6.), 177쪽. 이 책에서 노신은 晋代에도 허구로 지어진 글이 있어 阮籍의 <大人先生傳>, 劉伶의 <酒德頌>, 陶潛의 <桃花源記>와 <五柳先生傳>과 같은 작품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우언이 주가 되고 수사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에서 발전해 나온 王績의 <醉鄉記>, 한유의 <오자왕승복전>, 유종원의 <種樹郭橐駝傳> 등과 같은 작품은 傳奇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는 달리 취급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高培華와 楊清蓮은 노신의 이런 견해는 六朝 志怪에서 발전해온 傳奇의 主流인 幻想類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보충 의견을 달아 <모영전>은 寓言類 傳奇에 속한다고 진단했다.⁴⁰⁾ 당대 傳奇가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이야기를 하는 기술이나 방법에 있어 새로운 개척을 요구하여 사건에 대한 관심에서 사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한바, 단순히 한두 등장인물을 둘러싼 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가 개입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서경호의 견해⁴¹⁾를 고려할 때,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소설에 대한 단일한 이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陳蒲清은 혹자가 <모영전>을 傳奇로 보기도 하지만 ‘예스럽고 간결하며 소박한’(古簡樸素) 작품으로 보아 傳奇와는 다른 부류의 작품인바 의인법을 써서 ‘허구로 꾸민’(幻設爲文) 우언이라고 하고, <오자왕승복전>도 역시 우언이라고 했다.⁴²⁾ 여기서 우언이라고 한 이면에는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기탁되어 있어 傳奇小說처럼 문면에 드러난 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배려가 들어 있다고 하겠다.

譚家健은 한유의 산문 창작을 논하면서 <모영전>은 의인법을 써서 붓의 일생을 쓴 우언 형식의 글이며, <오자왕승복전>은 이름은 傳記이지만 실은 평론이라고 하여 소설과 연관 지어 언급하지 않았다.⁴³⁾ 물론 그가 ‘고대의 문장 체제’를 논할 때에 寓言故事인 <毛穎傳>과 馬中錫(?~1512?)의 <中山狼傳>을 傳奇小說인 白行簡(776~826)의 <李娃傳>, 蔣防(813 전후)의 <霍小玉傳>, 李朝威(759 전후)의 <柳毅傳> 등과 함께 놓고 허구에서 나온 것으로 실록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들이 傳記文體에 두지 않

39) 같은 책, 186-7쪽.

40) 高培華·楊清蓮, <傳記, 還是傳奇?>, 《中州學刊》, 1984年 4期, 83-4쪽. 이 글에서는 傳奇를 예술 풍격에 따라 幻想類, 寫實類, 寓言類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41) 서경호, 《중국소설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2.), 206-7쪽.

42) 천푸칭 씀 / 오수형 옮김, 《중국우언문학사》(서울: 소나무, 1994. 6.), 220-1쪽.

43) 譚家健, 《中國古代散文史稿》(重慶: 重慶出版社, 2006. 1.), 319-20쪽.

고 雜文類 또는 小說家類에 넣었다고 한 바 있지만⁴⁴⁾, 이 역시 허구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언고사일 뿐 傳奇小說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유 '전'의 장르 규명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영전>이라는 假傳의 장르 문제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검토는 우리 한문학과 국문학과에서 이루어졌다. 安秉高은 陳寅恪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끌어와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모영전>은 昌黎가 《사기》를 본뜬 글로 대체로 고문으로 실험삼아 소설을 지었지만,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이다. 微之의 <鶯鶯傳>은 《좌전》을 본뜬 것 같지만, 역시 고문으로 실험삼아 소설을 지은 것으로 제대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대체로 <앵앵전>은 스스로 서사를 한 글로 진정과 실제적인 사건이 들어 있다. 반면에 <모영전>은 순전히 유희적인 필치이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정도가 본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대저 소설은 상세해야 하는데 한유의 작품은 너무 간단하다. <모영전>이 <앵앵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또한 주된 원인의 하나이다.⁴⁵⁾

안병설은 진인각이 한유의 <모영전>과 元稹(779~831)의 <앵앵전>을 비교하여 양자 모두 소설의 실험작이긴 하지만, 전자는 서술이 너무 간략한 유희적인 글이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반면에 후자는 진정과 실제적인 사건을 가미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소설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여 假傳과 傳奇가 서로 다른 장르임을 분명히 한 뒤, 이어서 “《좌전》 형식의 묘사를 주로 한 사건 중심의 서술은 소설로 발전해 갔으나 《사기》 열전체의 간결한 서술은 가전으로 독특한 독자적 발전을 이루어 갔다.”고 진단하고, 양자의 차이를 文體, 主人公, 作意, 修辭, 內容, 作者, 影響 등의 여러 요소를 가지고 비교했다.⁴⁶⁾ 그런데 이런 제반 요소의 비교도 나름대

44) 같은 책, 575-6쪽.

45) 陳寅恪, 《元白詩箋證稿》, 115쪽: “毛穎傳者, 昌黎摹擬史記之文, 蓋以古文試作小說, 而未能甚成功者也. 微之鶯鶯傳, 則似摹擬左傳, 亦以古文試作小說, 而真能成功者也. 蓋一鶯鶯傳乃自敘之文, 有真情實事. 毛穎傳則純爲種游戲之筆, 其感人之程度本應有別. 夫小說宜詳, 韓作過簡. 毛穎傳之不及鶯鶯傳, 此亦爲一主因.”

로 양자가 상이한 장르임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서사의 차원이 아닐까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石明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구조에 입각하여 전개된 조동일의 소설 이론⁴⁷⁾을 인용하여, <앵앵전>은 자아인 ‘長生’과 그와 대결하는 세계인 ‘장생의 내면심리와 주변상황’이 相互優位의 관계에 있으며, 작품 외적 자아인 작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설적 대결구조’를 지닌 작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모영전>은 소설답지 못하다. 조동일은 高麗 후기부터 朝鮮 초기까지 성행한 가전체의 장르 규정을 시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假傳體에서의 虛構는 擬人化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법이고 對象에 人間의인 意味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그 구실이 한정되어 있지만, 敘事文學에서의 虛構는 작품세계의 독립적인 小宇宙를 창조하는 기본 원리이며, 그러기에 敘事文學에서는 창조된 결과가 對象과 直接的으로 對應되지 않는다.⁴⁸⁾

이 글이 한유의 <모영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 하에 나온 우리나라 가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시도한 장르 성격 규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모영전>은 생활 주변의 흔한 사물인 ‘붓’을 의인화함으로써 성립되지만, 붓에 관한 기존 지식은 ‘毛穎’이라는 작중인물을 설정하는 데만 이용되었을 뿐이고 작품 외적 기존 지식이 없으면 이해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⁴⁹⁾ 다시 말해서 허구적 설

46) 安秉高, <韓中假傳文學研究>, 34-35쪽.

47) 趙東一, <自我와 世界의 小說的 對決에 관한 試論>, <韓國小說의 理論>(서울: 지식산업사, 1977. 3.), 66-136쪽 참조.

48) 조동일, <假傳體의 장르 規定>, 338쪽. 여기서 말하는 敘事文學의 대표적인 장르는 물론 소설이다.

49) 안병설은 <모영전>에 등장하는 “전설이나 고사는 중국에 있어 보편적인 일 반화한 지식으로 작품외적 지식이라 할 수 없는, 독자층이면 누구나 알 수 있

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낸 작품 세계가 작품 내적 유기성과 필연성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존재한다는 말이다.

주지하듯이 <모영전>은 모영(毛穎) 곧 붓을 의인화하여 쓴 傳記로 표면적으로 보면 한 편의 '토끼전' 내지 '붓의 전기'이지만, 실은 이를 빌어 작자의 마음속에 맺힌 울분을 깃들인 것이다. 모영이 젊은 시절 요긴하게 쓰이다가 늙어서 내버려지는 사실을 빌어 고위 통치자들이 功臣을 각박하게 대하는 현실을 들추어냄으로써, 인재를 중시하는 작자의 사상을 피력하고 벼슬살이에서의 부침을 통해 느낀 자신의 감개와 불평을 기탁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대부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글의 구성이나 언어 및 체제 등에서 《사기》의 인물 전기 서술방식을 본떠, 겉으로는 毛氏의 선조 및 毛穎의 일생 경력과 자손 등을 쓰고 있지만, 실은 붓의 원료 산지, 발명, 광범위한 용도, 그것과 관련한 신화 전설들을 한 데 엮어 써낸 것이다. 게다가 전문에 걸쳐 의인법을 구사하고 허구에서 나온 유희적이고 해학적인 필치로 雙關語를 적재적소에 두루 활용하여 흥미를 돋운 작품이다.

그리고 <오자왕승복전>은 미장이 왕승복의 전기적 사실을 적은 부분은 아주 소략하여 작품 전체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그의 말을 통한 의론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분수를 지키며 자기 일에 충실한 평범한 육체노동자의 입을 빌어, 능력이나 공적도 없이 분수에 맞지 않는 관직을 차지하고서도 직무를 태만히 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관료층의 추태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천시 받는 육체노동자의 생각이나 처신이 고관대작들보다 훨씬 더 고상함을 드러내어 당시 벼슬아치

는 언어적 상식이라는 점을 곡해해서는 안 될 것”(〈中國假傳文學研究〉, 21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모영전> 속에 쓰인 典故가 당시의 사대부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만, 그런 내용들이 작품 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품 외적 지식이라고 한 조동일의 원뜻을 도리어 곡해한 것으로 보인다.

들의 후안무치와 추태를 풍자하는 뜻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자아 독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글의 서두와 결말에 작품외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작자의 논평으로 되어 있을 뿐, 자아와 대립하는 세계의 존재는 찾기 어렵다.⁵⁰⁾ 그리고 주인공인 왕승복이 天寶의 난리, 곧 安史의 난 때 13년 동안 종군하여 전공을 세우고도 관직이나 훈작을 받지 않고 낙향한 모습이 袁郊(853 전후)의 <紅線傳>이나 杜光庭(850~933)의 <虬髯客傳>과 같은 傳奇小說에 보이는 영웅들의 성격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런 성격을 지닌 자아와 얽히고설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립적인 세계가 등장하여 긴장감 있는 사연을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서사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소설에 대해 막연하게 광의의 애매모호한 개념 인식을 가지고, 일부 소설적 기법이 원용된 작품을 소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피상적인 장르 인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오자왕승복전>과 <모영전>은 ‘허구적 설정의 소설적 기법을 활용한’ 문학성이 매우 짙은 우언 형식의 諷諭⁵¹⁾體 傳記散文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게다가 주지하듯이 <모영전>은 의인법을 써서 지은 중국 최초의 假傳으로 ‘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효시적 작품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더군다나 이 두 작품이 대표적인 고문 선집인 《古文辭類纂》, 《古文觀止》, 《古文眞寶》 등에 두루 수록되어 온 역사적 전통도 고려할 때, 전통 詩文과 俗文學 장르의 교섭이 일어나기 시작한 중당이라는 문학사적 전환기에 소설의 영향을 받은 산문의 한 별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오자왕승복전>과 <모영전>으로 대표되는 한유의

50) 굳이 왕승복이 미장 작업을 한 적이 있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집안을 세계로 해석하더라도 그들은 작품 속에서 일방적으로 몰락하는 군상으로 그려져 있어 소설적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51) 南哲鎮은 <唐代諷諭文研究>(博士學位論文, 復旦大學 研究生院, 2004. 5.) 에서 <모영전>을 한유의 대표적 풍유문이라고 하고(34쪽), 각론으로 들어가 <오자왕승복전>을 인생 교훈을 제시한 풍유문으로 보고 그 의미를 논의한 바 있다(89-90쪽). 거기에서 ‘諷刺’와 비교하여 ‘諷諭’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양자의 미묘한 개념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전'은 그 위치로 볼 때 소설과 산문의 양간에 있어 양자 상호 교섭의 흔적이 짙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소설적 기법을 갖춘 산문 작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문의 성격을 규범적인 좁은 안목에 가두어 두지 말자는 바람이 들어 있다. 중당은 이런 점에서도 雅俗의 문학이 만나 교섭하는 단초를 열었으며, 그것이 儒道の 옹호자로 자임한 고문 대가인 한유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아울러 고문과 소설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傳奇小說이 古文의 지류 또는 종속물이라는 따위의 이분법적 사고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 대등한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교섭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한유는 표면적인 구호로는 정통 유학의 재건을 주창하였지만, 개인적인 내밀한 취향으로는 문학의 오락적 기능을 인식하고 傳奇小說類의 작품도 즐긴 전문 문인이다. 그의 이런 문인 기질은 정통문학과 속문학의 교섭이 일어나기 시작한 중당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사적 작품을 중심으로 소설적 요소가 적지 않게 활용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장 체제의 하나인 한유 '전'의 장르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마천에 의해 창제된 '열전'에 뿌리를 둔 '전'은 역사에서 문학의 영역으로 전이되어 역사적 인물이 아닌 보통 사람들까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인생과 사회적 의미를 기탁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허구적 상상과 해학적 수법까지 가미함으로써 전기문학의 중심에 위치한 문장 체제로 자리 잡았다. '전'이 이처럼 역사에서 문학으로 전이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유는 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한유는 고문운동을 통해 각종 문장 체제의 진부한 상투를 타파하

는 문체 개혁 작업을 주도하였는데, ‘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체재의 서사적 작품에 소설의 허구적 수법을 끌어들이어 산문의 문학성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셋째, 중국의 일부 논자들이 한유의 ‘전’을 ‘古文小說’ 또는 ‘傳奇小說’로 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소설에 대한 애매모호한 장르 인식을 가진 일부 논자들이 사실 기록의 전통이 강한 중국산문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인식에 얽매어, 허구적 성분이 개입되면 소설로 보려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서사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소설에 대해 막연하게 광의의 애매모호한 개념 인식을 가지고, 일부 소설적 기법이 원용된 작품을 소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피상적인 장르 인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오자왕승복전>과 <모영전>은 허구적 설정의 소설적 취향을 지닌 문학성이 매우 짙은 우언 형식의 풍유체 전기산문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모영전>은 의인법을 써서 지은 중국 최초의 가전으로, ‘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작품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본고에서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유의 ‘전’이 소설이라는 일부 논자들의 견해를 넘어서서, 한유 등 唐代 고문 대가들의 산문 작품 속에 소설적 요소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산문과 소설의 장르 양간을 넘나드는 상호 교섭의 현상과 원인 및 문학사적 의의 등을 탐구함으로써, 전환기 중당문학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하는 단계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 韓愈 撰 / 馬其昶 校注, 《韓昌黎文集校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2.
 高培華·楊清蓮, <傳記, 還是傳奇?>, 《中州學刊》, 1984年 4期.
 顧炎武, 《日知錄》(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56. 4.

- 郭預衡, 《中國散文史》中(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10.
- 金昌龍, 《韓中假傳文學의 研究》(서울: 開文社), 1985. 8.
- 南宗鎮, 《唐代 文人の 短篇 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 南哲鎮, 《唐代諷諭文研究》, 博士學位論文, 復旦大學 研究生院, 2004. 5.
- 譚家健, 《中國古代散文史稿》(重慶: 重慶出版社), 2006. 1.
- 董乃斌, <唐代詩歌散文的小說化傾向>, 《唐代文學研究》, 第4輯(桂林: 廣西師大出版社), 1993. 11.
- 루원 저 /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서울: 소명출판), 2004. 6.
-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12.
- _____, 《중국소설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2.
- 石 明, <唐傳奇의 小說의 特性 研究>, 《中國文學》, 14輯, 1986. 12.
- 成復旺, 《韓愈評傳—轉折點上的文化強人》(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7. 8.
- 孫昌武, 《唐代古文運動通論》(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4. 4.
- 安秉高, <傳의 文學的 變容>, 《韓國學論叢》, 2輯, 1979.
- 安秉高, <韓中假傳文學研究>, 《中國學報》, 15輯, 1974. 12.
- 吳 訥·徐師曾, 《文章辨體序說·文體明辨序說》(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2. 8.
- 吳文治, 《韓愈資料彙編》(北京: 中華書局), 1983. 9.
- 李景華 외 지음 / 이종한·황일권 옮김, 《중국산문간사》(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7. 6.
- 李一飛, <中唐傳記文學鳥瞰>, 《文學遺產》, 1992年 1期.
- 李志慧, 《唐代文苑風尚》(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8. 5.
- 林非 主編, 《中國散文大辭典》(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6.
- 蔣 凡, 《文章并時壯乾坤—韓愈柳宗元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 1.
- 褚斌傑, 《中國古代文體概論》(增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10.
- 前野直彬 / 김양수·최순미 옮김, 《중국문학서설》(개정판; 서울: 토마토),

1996. 3.
- 趙東一, <假傳體의 장르 規定>, 《藏菴池憲英先生回甲紀念論叢》, 1971.
- 趙殷尙, <韓·柳의 글쓰기에 대한 試論—傳記의 故事性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17輯, 2005. 6.
- 拙 稿, 《韓愈 散文의 分析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2.
- _____, <專門 文人으로서의 韓愈>, 《東亞人文學》, 12輯, 2007. 12.
- 周 敏, <試論韓愈古文與小說的關係>, 《韓愈研究》, 3輯(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2. 3.
- 朱子南 主編, 《中國文體學辭典》(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8. 11.
- 朱自清, 《朱自清古典文學論文集》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7.
- 陳蘭村·張新科, 《中國古典傳記論稿》(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1. 10.
- 陳寅恪 撰 / 程會昌 譯, <韓愈與唐代小說>, 《韓愈研究論叢》(香港: 大東圖書公司), 1978.
- _____, 《元白詩箋證稿》(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3.
- 친푸칭 씬 / 오수형 옮김, 《중국우언문학사》(서울: 소나무), 1994. 6.
- 崔信浩, <傳記·傳奇·小說>, 《聖心語文論集》, 5輯, 1981. 12.
- 韓兆琦, 《中國傳記文學史》(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2. 8.
- James R. Hightower, Han Yü as Humorist, *HJAS*, Vol. 44, No. 1, 1984. 6.
- Y. W. Ma, Prose Writings of Han Yü and Ch'uan-ch'i Literature, *Journal of Oriental Studies*, Vol. 7, No. 2, 1969.
- Willuam H. Nienhauser, Jr., An Allegorical Reading of Han Yü's Mao-Ying Chuan, *Oriens Extromus*, Vol. 23, No. 2, 1976. 12.

< 中文提要 >

本文通過議論關於韓愈'傳'的體裁, 得出了以下四個結論。

第一, '傳'是根據司馬遷創製的'列傳'而發展出來的, 它從歷史向文學領域轉移, 不僅是歷史人物, 并使普通人物登場為主人公, 作者通過這些人物的生涯, 不但是寄託人生和社會的意義, 而且運用了虛構的想像及談諧的寫作手法, 以此來穩固'傳'的傳記文學當中的重要位置。'傳'就這樣從歷史領域到文學轉移發展的過程中, 韓愈發揮了一個中心軸的主導作用。

第二, 韓愈通過古文運動, 打破了各種文章體裁的陳舊格套, 并主導了文體改革。他在以'傳'為主的衆多敘事性體裁作品裏, 拉入了小說的虛構手法, 使散文的文學性得到進一步的提升。

第三, 中國的一部分論者把韓愈的一些'傳'體作品看成'古文小說'或'傳奇小說'的看法, 是因對小說的朦朧體裁的認識, 又因論者們囿於對中國散文實錄性强的基本認識, 難以打破成見, 因此如果散文中介入虛構成分的作品, 便會使它們有看成小說的傾向。

第四, 對於敘事文學代表性的小說體裁而言, 根據漠然廣義而朦朧的概念認識, 把部分運用小說寫作技法的散文作品規定為小說, 那種看法不得不說是安逸而膚淺的體裁認識。於是, 我把<圻者王承福傳>和<毛穎傳>, 看成帶着虛構設定和小說因素的寓言性諷諭體傳記散文。衆所周知, <毛穎傳>尤其是運用了擬人法寫的中國最初的假傳, 在'傳'的演變上具有新的突破性意義。

本文所得出來的成果是跨越把韓愈的一些傳體作品看成是小說的一部分論者的見解。其實韓愈等唐代古文大師們的散文作品中有不少的小說因素, 注意到這一點, 研究散文和小說的兩種文學體裁相互滲透的現狀、原因和其文學史上的意義等等, 期待着對於轉折時期中唐文學的探索能夠進一步具體且多樣化的角度來思考。

주제어 : 韓愈, 傳, 史傳, 假傳, 傳記, 傳奇, 小說, 寓言, 諷諭